



시로 읽는 성보순례
금동삼존불감
국보 73호 금동삼존불감
고려시대 ▶2면

목숨은 팔라 오래 머물지 않고
즐거움은 무상해 없어지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정법염처경 제57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7월 26일) · 주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05호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사후약방문’ 재산관리 언제까지

조계종 사찰 토지 불법 매각 비리, 대책 없다

사명대사의 유혼이 서려 있는 밀양 표충사가 털렸다. 임기 만료를 앞둔 前 주지 스님이 사무장과 공모해 약 40억대의 산보 정재를 불법으로 매매·횡령했다.

현재 총무원과 통도사가 파악한 피해 현황을 보면 스님은 토지 17필지, 약 7만평을 불법 매각했고, 그 액수는 34억원 대에 이른다. 또 한 사찰 회계 장부 확인 결과 1억 9천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미승인 기채도 5억원이 발생했다. 문화재구역임장료 예치금도 불법적으로 사용됐다.

표충사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불법적 토지 매매는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주지 스님이 토지를 불법으로 처분하면, 망실된 토지를 본사와 종단이 소송을 통해 환수해왔다. 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식 대응이 대다수다. 불법 매각을 사전 인지에 예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조계종 사찰들이 불사 등을 이유로 토지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구 본사를 거쳐 총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구 본사와 수

말사들에 대한 중정 감사도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산보 정재를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 있

중정감사 기간, 빈도 확대

주지에 총무원 행정 권한 집중 사찰 내 견제장치 마련돼야

어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지만 표충사의 경우는 명백한 사기극”이라며 “주지와 사중 측근이 문서까지 위조해 사기를 치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총무원의 한 부장급 인사 역시 “사회 안에서도 이런 사기 범죄에는 대책이 많지 않다. 종교 단체만큼 재산 관리에 있어서 수행자 개개인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주지와 사무장이 담합해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종단과 교구본사 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불법매매 정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총무원장을 연구해 온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정 감사를 실효성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통 중정 감사기간은 3일이다. 스님 2명과 재가자 2명이 팀을 이뤄 교구본사와 수말사를 감사한다.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각 사찰에서 2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 기간을 늘리거나, 횡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에 누락된 일부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종단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재산들은 망실했을 경우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종교 법인이 가장 용이하지만 종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공산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볼 때 신도가 안된 일부 토지를 종단 명의로 전환시켜 관리하는 게 제 2, 3의 표충사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제대로 된 스님에게 주지를 맡기는

인사시스템 정립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찰 총무원장의 구조적인 원인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사찰의 총무원장은 주지 스님에게 가장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주지 스님이 마음만 먹으면 사중 측근들과 협의 하에 얼마든지 사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표충사 비리도 前 주지 스님과 사무장의 담합으로 이뤄졌다. 사찰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가 됐지만, 인준 장치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조기룡 교수는 “현 총무원장 구조는 주지 스님이 전횡을 한다면 막을 방안이 없다. 새의 날개처럼 주지 스님을 견제하며 총무원장을 운영할 때 한 축이 필요하다”며 “재가 전문 총무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의 다른 관계자는 “열 명이 지켜도 한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조계종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부서와 인력이 한계가 있다”며 “전통사찰 관리에 있어서 문화재적인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 회계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종일 기자



아! 이런 경전동지할 일이 개선교 한 목사가 술김에 사찰 조사전에 소변을 넣고 탕화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8월 20일 대구 동화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대구불교계는 지방법원을 향의 방문했으며 이 목사는 이례적으로 구속수감됐다. 사진은 낙서한 신신각 탕화 모습.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 발족

3일 위원 위촉식… 첫 의결 ‘시몽 스님 직무 정지’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을 알렸다. 중앙징계위원회 구성은 제190회 중앙총회에서 의결된 총무원법 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뤄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징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동화사 주지 성문, 중앙총회의원 정복, 보광사 주지 종훈, 법연사 주지 보경 스님을 위촉했다.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지승 스님은 “그간 주지 직무 정지 등 형사 문제 등으로 구속이 돼 도 직무가 유지돼 사중에 피해가 많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는 고민이 많은 위원회다. 모든 사안에 심사숙고해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의 첫 징계 사례는 최근 중

단과 마찰을 겪고 있는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9월 6일 회의를 열고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주지와 7직 소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사찰 총무원장의 비정상적 운영, 종헌 준법과 직무 지침, 특별감사 거부 등을 근거로 총무원법 제33조에 의거해 징계 혐의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초심회계원은 직무상 비위로 회부된 시몽 스님과 불법 촬영을 지시한 보연 스님에게 제재 판결을 내렸다. 신종일 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는 곧 상생의 길”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자승스님 상임대표 추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 등이 뭉쳤다.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9월 5일 조계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김덕룡 민화협 대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명진 우리민중서도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남부원 한국 YMCA 총무, 최요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상임 대표로 추대된 지승 스님은 “북한은 아직 남북할 수준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 또한 이를 계기로 한 발 더 성숙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이 서로 다두고 겨루

는 불행의 역사를 끝내는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고성군 현내면 일대 음식점 여관 주인들은 빚에 쫓겨려 야반도주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금강산 관광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 신변보장만 된다면 양 당국의 대화 가 조속히 재개되어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민간 차원의 임장 전달 및 협의를 위해 정부면담 및 북측과의 접촉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 행동의 날 추진 ▷피해업체 실태 조사 ▷정부가 제시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 보장에 대한 해



조계사 대웅전 대강당에서 열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등이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범 마련 ▷금강산 남북 공동행사(금강산 국제평화콘서트)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투자기업들과 강원

도 고성군 등의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정상화만이 아니라 남북의 지속적인 공존·번영을 위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글=정혜숙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경력기자 수습기자	약간명	① 경력기자 3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2년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2년 9월 19일 수요일까지
- 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2004-8204, 8205, 8212)

905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쇄신위 4대의제 마련
제49차 포교정책 연합회
“원진문제 은폐·축소”
불교방송 공영미디어랩 편입
풍경소리 철거 전면 백지화
포교원·대불련 극적 합의

시방세계 5
정호 스님과 도음의 만남

신행 6
사찰 스마트폰 영상 법회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27

“이 책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었습니다.”

— 최단기간 100만부 돌파! (예매이 분야) —

★가장 많이 선물한 책 1위! 2012 상반기 네티즌 선정 한국인 필독서 1위!★
★중국, 일본, 대만 판권 수출! ★ 16주간 베스트셀러 1위! ★ 2012 상반기 환경 히트상품 선정!★

읽고 선물하고, 읽고 선물하고... 종교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책!

“어려운 불경 대신 이 책으로 법보시했습니다. 이 책은 종교의 벽에 갇힌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안대하는 젊은 선배의 마음공부법입니다.”
“갑자기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마음을 편히 먹고 싶을 때, 이 책의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보면 해답이 보인답니다.”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는 말이 아닌, 해민 스님의 글은 넘어져 있는 우리들 옆에 같이 있더라서 말해줍니다.” — 독자의 글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지음·우창현 그림 | 값 14,000원

허버드, 프린스턴을 나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교수로 재직 중인 해민 스님.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계정으로 손꼽히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혼의 멘토’로 자리잡았다.

법공양 및 단체 구매 시 안내해드립니다. 031-960-4845 뽕앤파커스의 책들은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 파주출판도시